

마음을 알라야식까지 세분

유가사지론 ④

글쓴이



조환기
(동국대 강사)

왜 유식은 식(識)에 대한 문제를 깊이 사유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인식의 차이가 행위의 차이를 결정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여자를 호랑이가 보면 먹을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범부는 좋아하는 여색으로 인식하고, 부처님

경전 속의 禪 사상

25

대상인식·욕망은 허망분별 때문 욕심 여의는 수행법 단계적 안내

은 오염덩어리로 인식하는 차이를 낳는다. 이는 결국 행위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유가론에서 강조하는 선정의 체험 속에서 불교의 요가를 행한 수행자들은 오직 식(vijñapti)만 있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대상에 가치를 두는 행위가 분별의식에서 기원했음을 안 것이다. 식도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는 모두 허망분별(虛妄分別)의 소산이다. 따라서 그 속에서 괴로워 하거나 고통받는 것도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유식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끊임없이 현현하는 허망분별의

지멸이었던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의식이 지멸되면, 적멸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유가론은 멸진경까지 이어지는 수행체계에서 이러한 허망분별을 지멸하고, 무분별지를 얻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삶의 목표로 추구하는 욕망의 작용들이 모두 허망분별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허망분별을 벗어나면 추구해야 할 무엇도 없게 되는 것이다. 원효스님은 무덤 속에 들어있던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니 갖가지 법(法)이 생기

고(心生則種種法生), 마음이 멀하니 갖가지 법이 멀한다(心滅則種種法滅)"고 하였다. 원효는 마음이 허망분별인 법을 낳고, 이들이 고통의 원인이 됨을 깨달은 것이다. 유가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별의식을 완전히 지멸하는 방법과 보살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인류의 수많은 종교, 철학의 가르침들은 욕심이 허망함을 알고,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가르침들을 퍼왔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욕심의 삶,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욕심의 정체를 파악하여 벗어나고, 결과를 살피는 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의 수행 속에서 이 이욕행(離欲行)이 들어있다. 특히 유가론에서는 이 이욕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또한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불교의 수행법인 선정을 수행하는 유식학에서는 선정체험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중시한다. 이 지혜는 무분별지(無分別智)이다. 분별에 의한 행위가 허망분별에서 기원했으므로 그러한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므로 유가론은 이 무분별지를 자신의 선정 체험 속에서 얻도록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정보가 인류의 희망은 아니다. 오히려 이 알은 것은 삶 속에서 실행에 옮겼을 때 정보는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실천 즉, 선정수행이 없는 이론은 불교의 완전한 이해인 깨달음과 희망으로 이끌어 주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유가론은 법상종의 소의는서로서 선정 수행의 실천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실천 논리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태국 니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종생이 우주라지만 ⑥

의지의 길 ①

우리는 흔히 불교의 교리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실행하기는 어렵고 이해하기는 쉽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별을 볼 때 손에 손에 쥐고 불경하는 것과 다를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인을 놓아버려야 한다. 물론 아니요, 못 놓겠어요. 그저 식기만 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인내심을 배울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놓으면 된다. 우리의 내면적인 집착을 놓아버리면 된다. 우리는 알을 낳은 어미새와 같다. 알을 품어서 부화시킬 책임이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들은 썩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물을 바로 보고 수행진전하고 마지막에 놓아버리면 된다.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와 모든 처방약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수행이나 하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견해는 또 다른 고(苦)의 원인이 될 것이다.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든 홀로 살든 행복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지 법(法), 팔정도

세계를 만드는 건 자신 외부 환경 탓하지 말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숲에 물과 쌀을 부어넣는 것만으로 즉시 밥을 얻을 수는 없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게 한 다음 충분히 뜸이 들도록 해야 한다.

지혜를 갖추면 문제점들은 자기 지은 업에 따라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살림살이를 바르게 보게 되면 업장을 알게 되고 인과를 배우게 되어 점차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된다.

우리는 수행이 어려워지면 계를워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는 등 우리의 의지력은 제쳐놓고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이다. 진실되게 노력하고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한 두번 시도하여 평온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한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방황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

마음은 물론 길들여져야 하지만 않은 물건이다. 말(馬)을 길들일 때 고집이 정말 세면 얼마동안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올바른 노력으로 지혜로울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정도도 수행하려면 세간 속에서 살되 그 위에 머물러야 한다. 오계를 위시하여 계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선행의 근본이다.

마하 부하 스님의 수행자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스님의 신통력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마하 부하 스님은 웃으며 세상에서 오직 한가지 진짜 신통이 있으니, 법의 신통력이다 바로 그것이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가르침이야말로 신통 그 자체다. 다른 신통은 모두 놀음판의 속임수일 뿐이다. 그런 신통은 우리가 생로병사와 맞고있는 관계 거기로부터 해탈이라는 인생의 진짜 경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정신 팔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유전자 조작

99년 4월 26일 8시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위험성을 다루었다. 자연과의 관계를 잃어버려 인간 위주만의 사고로 인해 스스로 만든 명에 걸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생명체를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 무책임하게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인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다.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는 별도로 생태계의 인위적 파괴, 그로인한 인간 생존의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전자 조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비슷한 종간의 교접을 통해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보다 생산을 많이 하고 병충해에 강한 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벼를 서로 수정시켜 새로운 종류의 벼를 만들거나 알팔과 수니귀를 교접시켜 짐을 나르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노쇠를 만드는 일이

에 속한다. 동물의 경우 다른 종과의 교접으로 생긴 새로운 개체는 다음 대의 자손을 낳지 못한다. 그리고 이 경우 다른 종이 가는 하지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 종들끼리의 교접이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만을 위한 위험한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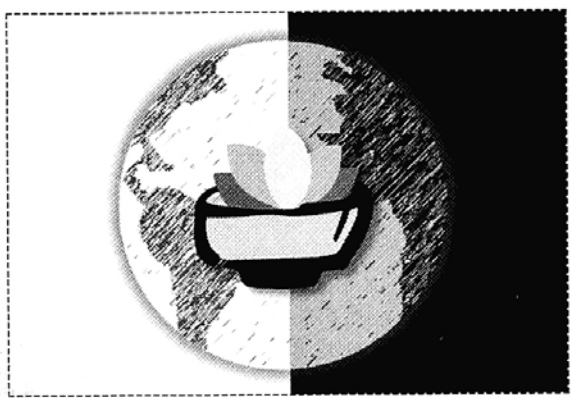
생태계 인위적 파괴·인간생존 위협

이와는 달리 전혀 상이한 종과의 교접이나 교배가 있다. 이 방법으로 생산된 유전자 조작 음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넣는 식이다. 이 방식은 진화의 역사에서나 동식물 계통에서 크게 다른 두 종간의 부분적 결합이다. 예를 들어 제초제에 강한 콩을 만들기 위해 이 제초제에 면역성을 보이는 세균을 발견하여 기른다. 이 세균의 유전자

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면역성을 나타내게 하는가를 판단한 후에 그 유전자를 추출하고 이를 콩 유전자의 프라스미드에 연결한다.

즉, 박테리아의 유전자 일부를 종이 전혀 다른 콩에 주입하는 것이다. 과정도 간단해 박테리아를 배양한 곳에 콩 인사귀를 심

어 놓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유전자의 정보는 다른 작물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다. 콩은 정상적인 자기 유전자 중의 일부를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의 유전자로 대체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암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연구중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을 알기 위하여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기금을 도출시킨 데이비드 파크가 주장하는 위험한 유전자 실험에 속한다.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소에 근무하던 박사가 폭로한 실험을 기사화 했다. 유전자 조작이 된 감자를 지속적으로 쥐에게 먹였더니 쥐의 체장은 비례해 지고 간, 위장은 작아졌으며 뇌 또한 작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증거라고 한다. 그는 연구소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해고되었다. 또, 캐나다 해안지방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연어의 알을 유전자 변형시켜 큰 연어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은 실험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어느 이상 강도를 높게 되면 연어 앞머리에

기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패한 실험으로 인해 생긴 생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습이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생명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가올 식량난을 걱정하면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당위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선진국들이 남아 버리는 음식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특히 타종간의 유전자변형 방법을 알지 못하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일타 큰스님의

불자의 기본 예절

신간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축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 I.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 II. 합장법과 예배법
- III. 사찰에서의 예절
- IV. 법문 듣는 법
- V. 절집안의 생활예절

4x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하십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x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는 큰스님의 법어집.

기도(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편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강>에 대한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쓴 해설집.

범망경보살계 1-5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